

## 연행록에 나타난 남자 수식

전혜숙·김태영<sup>†\*</sup>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교수  
동의과학대학 미용계열 전임강사<sup>†\*</sup>

### Man's Hair Style on <Yeon-hang-rock>

Hea-Sook Kim · Tae-Young Kim<sup>†\*</sup>

Prof., Major in fashion Desig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Cosmetology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sup>†\*</sup>

(2006. 1. 4. 접수; 2. 2. 채택)

#### Abstract

The value that evaluates ancient Oriental civilization and culture is Hwa-i-kwan(華夷觀: the view that China is only good country and the others are savages) as Confucianism. Generally, Hwa-i-kwan(華夷觀) includes cultural Hwa-i-kwan(華夷觀) as Confucian culture is only superior, Han-centered racial Hwa-i-kwan(華夷觀), and country-centered geographical Hwa-i-kwan(華夷觀). As times goes on, instead racial and geographical Hwa-i-kwan(華夷觀) is diluted, cultural Hwa-i-kwan(華夷觀) was just emphasized. The value of cultural Hwa-i-kwan(華夷觀) is presented on dressing system and hair style becoming an issue in Confucian culture.

This study intends to research how Hwa-i-ron in latter period of Chosun influenced the view of Ching men's hair style, pigtail. For this study, 5 books of Yeon-hang-rok in 17~18 centuries are chosen, but some parts of them would be selected concerning with hairdressing and would be studied with other documents.

Hwa-i-kwan(華夷觀) had dominated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and had been making proprieties, then geographical and racial Hwa-i-kwan(華夷觀) were disappeared when Ching had been building a big cultural country, but cultural Hwa-i-kwan(華夷觀) had been stronger in latter period of Chosun than before, it had been a standard in all proprieties.

After all, not only did cultural Hwa-i-kwan(華夷觀) become a standard of all proprieties in Chosun, but it was applied to the view of Ching men's hairstyle. So, people thought that pigtail, Ching men's hairstyle, is a custom of the savages, out of Chinese proprieties. Therefore, this cultural Hwa-i-kwan(華夷觀) that Chosun is a real China through taking over Chinese proprieties might be in that age.

**Key Words:** Hwa-i-kwan(화이관), Yeon-hang-rok(연행록)

## I. 서론

首飾은 시대적 변화를 거둬하며 전승되어 내려오는 의관예제의 일종으로, 수발방법, 형태 등의 수식제도는 당대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제도이자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고대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서는, 민족과 문화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국 문화 중심의 화이관적 가치관으로 평가를 해나가고 있었다.

이 화이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유교문화만이 우수한 문화라는 문화적 화이관, 중국 한족만이 우수하다는 한족중심의 종족적 화이관, 중원 중심의 지리적 화이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화이관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쳐, 특히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여 중국문화를 모방 계승하면서 조선이 소중화라는 의식을 심화시켜 가고 있었다.

이러한 화이관은 조선중기까지는 전통적인 화이관이 주된 사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중국이 만주족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17-18세기가 되면서, 전통적 화이관 중 종족적 지리적 화이관은 희석되어 가고, 유교문화 중심의 문화적 화이관이 강조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임진·병자 양란 이후 국제적으로 정통 중화문화의 계승국이자 유교문화의 종주국인 명·만주족인 청에 몰락하면서 일어난 변화로 조선에서는 내외 환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국가 기강과 민심의 수습을 위해 유교예제의 적극 수용과 확산의 노력의 결과 화이사상이 조선후기에 더욱 심화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적 화이관의 기준은 유교문화가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예제 중의관제도와 수식제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한족들은 '신체발부수지부모'라는 유교적 가치관 아래 머리를 길러 상투를 틀고 관을 썼으나, 한족 이외의 주변 민족들은 이마 주변의 머리를 밀거나 짧게 깎고, 변발을 하는 등 한족과

는 다른 수식을 하고 있었기에 한족들은 이민족의 수식제도를 夷狄문화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복식제도에 있어서 신라 진덕왕 이후<sup>1)</sup>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모방하였고, 수식제도에 있어서도 중국과 같은 제도<sup>2)</sup>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에 와서는, 조선이 小中華라는 의식하에 중국문화를 적극 수용 모방하게 되면서 중국과 같은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연행록은 조선후기 조공을 위해 청을 공식 방문한 사신들의 공적 기록문서 임과 동시에 변화되어 가는 청의 여러 제도와 풍속, 예제 등 사회의 여러 측면의 기록과 함께 연행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이 기록되어져 있음으로 인해 조선후기 대표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연행사들의 시대적 가치관은 물론 대청의식까지도 알 수 있는 기록으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그간 연행록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문학계나 사학계, 중문학계 등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주제이지만, 복식사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로서, 김창업과 최덕중의 연행록에 나타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대청의식과 복식관, 연행록 전반에 나타난 각종 복식을 정리해 준 것<sup>3)</sup>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연행록의 기록을 보면 복식 못지않게 수식제도 또한 유교예제의 본질로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대청의식과 화이관이 잘 나타나고 있으니, 수식에 반영된 대청의식과 조선후기의 문화적 화이관의 본질을 알아봄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에 기록된 연행록들 중 연행사들 개인적 생애와 사회적 배경, 남자수식에 관한 기록들을 함께 고찰하여 변발에 반영된 화이관적 가치관과 대청의식의 변모양상을 알아봄으로써 조선후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의 본질을 알아보려 한다.

시대범위로는 18세기 초에 18세기 말까지 보고자하며, 분석 자료로는 수식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는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 이암의 <연행기사>, 박지원의 <열화일기>, 서유문의 <무오연행록>를 택하여, 100여 년간 의식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이 연행록들 중에서 남자수식

†Corresponding author ; Tae-Young Kim  
Tel. +82-17-557-3450, Fax. +82-51-860-3458  
E-mail : kty0316@dit.ac.kr

관련 기록을 발췌하여서 문헌과 함께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 II. 18세기 조선조의 시대상황과 지식인들의 사상

이 장에서는 연행록에 수록된 수식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18세기 조선이 처한 시대상황과 당시 지식인 사회에 팽배해 있던 사상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여 중국의 문화를 모방 계승하면서 전통적인 화이관이 조선 후기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중기에 일어난 임진·병자 양란의 결과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이 양란이 결코 힘의 논리에 대한 패배나 심복이 아니라 의식 고양의 사회 전반에 필요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 이념으로 창안된 논리가 중화문화 보존 논리인 존주론과 오랑캐의 배척논리인 북벌론으로서, 이 두 가지 논리는 조선 후기 사상의 근본이 되면서 지식인들의 세계관이 되었다.

이에 존주론의 근원을 이루는 화이관은 고대 중국인의 中華思想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중국 고대 漢族이 자국을 中華·中夏 또는 華夏라고 칭하면서부터 시작<sup>4)</sup>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크게 종족적 화이관, 지리적 화이관, 문화적 화이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문화적 화이관을 자세히 보면, 유교문화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문화를 華夷로 구분하는 관점으로, 이 관점은 춘추전국시대 이후 공자에 의해 禮의 질서규범인 유교가 성립되고,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부터 중국과 이민족 사이에 ‘朝貢’과 ‘冊封’의 관계를 성립시켜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민족을 금수로 취급<sup>5)</sup>하고 이 민족들의 문화를 夷狄의 문화로 치부해 버리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이관은 동양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양의 가치관이자 세계관이 되었고, 특히 유교적 禮制가 可視的으로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의관제도와 수식제도에서 문화적

화이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옛 문헌인 <예기>를 보면, “동쪽 오랑캐 夷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문신을 하며, 서쪽 오랑캐 玁은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짐승의 가죽을 입으며, 북쪽 오랑캐 狄은 새의 깃털로 된 옷을 입고 굴속에 살며, ….”<sup>6)</sup>라 하여, 중국의 제도와 다른 민족의 구분을 복식제도와 수식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도경>에도 “동이의 풍속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며, 이마에 문신하며 발이 교차한다고 한다. …우리 송나라에 이르러 자주 왕이 옷을 내려 점차 우리 중국풍에 젖게 되고…의복의 제도가 크게 갖추어지고 우리 송의 제도를 따르게 되었으니, 다만 변발을 풀고 좌임을 덜었을 뿐만이 아니다.”<sup>7)</sup>라 함은, 고려가 중국 제도권으로 들어온 민족임을 나타내는 것이 의복제도와 수식제도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華夷論的 가치체계는 조선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대명관계는 君臣관계이전에 明이 중화문명의 정통적 계승자이기에 성립된 관계이므로 明이 멸망한 현실에서는 조선이 중화문명 계승의 역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나가는 한편 대청관계는 힘의 우세 의한 형식적인 것일 뿐, 청의 문화 문물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조선이 월등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이 문화적인 우위관은, 명이 만주족에게 멸망한 시점에서 漢族중심의 종족적 華夷觀과 중국 중심의 地理的 華夷觀은 희미해지며, 조선의 주자학에 만 중국문화의 정통성이 계승<sup>8)</sup>되어 이어지고 있다는 문화적 華夷觀의 계승논리가 되면서 비약 발전되어 문화적으로 조선이 청에 비해 우월하다는 자부심과, 유일한 중화문화 계승자라는 朝鮮中華思想으로 심화시켜 나가게 되어 조선 문화에 대한 自尊意識과 主體意識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sup>9)</sup>, 이 사상은 17-18세기 전반에 걸쳐 조선 지식인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북벌론은 17세기 중반 병자·정묘호란의 침략국이자 명을 멸망시킨 淸에 대해 복수를 함으로서 상치받은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고 치욕을 씻겠다는<sup>10)</sup> 의지의 표현이었으나 청조의 거듭된 국력신장과 경제의 번창함으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과 현실

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존주론과 북벌론에서 시작된 조선후기 사회의 화이관은 화이구분의 기준을 민족과 지역이 아닌 유교문화 수용의 여부로 구분 짓는 문화적 화이관의 강조로 변질<sup>11)</sup>되어, 조선과 청 관계가 안정되고, 청의 번영과 국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청의 예제문화를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우열의 기준으로 문화적 화이관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화이관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연행록에 기록된 청의 남자 수식제도를 보고 판단하는 견해에 잘 나타나고 있음으로 청의 남자 수식에 관한 견해를 발췌 분석해 봄으로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대청의식과 문화적 화이관의 변모양상이 수식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Ⅲ. 각 연행록에 나타난 남자 수식

이 장에서는 연구 분석대상으로 채택한 <연행록> 5편의 저자들의 생애와 연행록의 특징을 알아보고, 기록된 내용 중에서 남자 수식에 관련된 기록들만을 발췌하여서, 각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대청의식과 화이관이 수식제도를 보는 관점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1. 김창업의 <연행일기>에 나타난 수식에 관한 견해

##### (1) 김창업의 생애와 <연행일기>

김창업은(1658 효종9 ~ 1721 경종1) 字는 大有, 號는 稼齋 또는 老稼齋로, 그의 증조부는 淸陰 김상헌으로 인조 때 유명한 斥和大臣이자 명필가였으며, 父인 文容 김수항은 숙종대에 영의정을 지냈고, 그의 장형 김창집 역시 숙종대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선형 김창협은 문장가, 삼형 김창흡은 김창협과 더불어 대학자로서 명성이 높았던, 조선후기 세도가의 대표적 가문인 안동 김씨 가문의 사람이었다.

김창업의 <연행일기>는 그의 나이 55-56세인 숙종38년(강희51년) 임진년 동지사 겸사은사로 파송

된 형 김창집의 타각으로 북경을 방문하여 기록한 글로서, 담헌 홍대용의 <담헌일기>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함께 조선후기 3대 연행록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존하는 이본은 6책이고, 한문본이 4질이고, 국문본 2질이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김창업의 가문배경을 볼 때, 화이론 사상에 입각한 보수적 대청관을 소유한 노론 가문의 일원이며, 학문적 배경 역시 북벌론과 존주론의 사상적 이념을 탄생시킨 송시열의 문하라는 사실로 볼 때, 그의 사상은 화이론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2) 김창업의 <노가재 연행일기>에 나타난 남자 수식

임진년 12월 12일 신유

“...머리를 깎는 것이 네 뜻엔 즐거우냐? 왜 우리처럼 머리를 기르지 않느냐?”

“머리를 깎는 것은 풍속이며, 깎지 않음은 예입니다.”...(중략)

“...이 마을에도 달자(성북변의 오랑캐)가 있는냐?”

“없습니다.”

“너희들은 달자와 친교를 맺느냐?”

“夷狄이 어찌 우리들 중국과 어울려 친교를 맺겠습니까?”

“우리 고려 역시 동이(東夷)인데 네가 우리들을 볼 때 역시 달자와 한가지로 보느냐?”

“귀국은 상등인이요, 달자는 하류인인데, 어찌 해서 한가지이겠습니까?”

“너는 중국과 이적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의 말을 들어서 알았느냐?”

“공자의 말씀에 ‘우리는 오랑캐의 풍속이 될 뻔 하였다.’(吾其被髮左衽)라고 쓰여 있습니다.”

“달자도 머리를 깎으며, 너희들도 머리를 깎는데 무엇으로써 중국과 이적을 가리느냐?”

“우리들은 머리를 깎지만 예가 있고, 달자는 머리를 깎고, 예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나는 ‘말이 이치에 맞다. 네 나이는 아직 어린 데도 능히 이적과 중국의 구분을 야니, 귀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구나! 고려는 비록 東夷라고 불리고 있지만 의관 문물이 모두 중국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小中華라는 칭호가 있다. 지금의 이 문답이 누설되면 좋지 않으니 비밀로 해야 된다<sup>12)</sup>.’

…내가 달자라고 한 것은 청인을 지목함이었는데 기모는 몽고로 오인한 때문에 답변이 그와 같았다<sup>13)</sup>.’

김창업의 <연행일기>에 기록된 수식에 대한 기록은, 위의 기록이 전부이나 어느 기록보다도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대청의식은 물론 수식제도에 대한 화이관을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기록을 보면, 김창업이 청인 소년의 변발을 지적하며 머리를 깎는 것이 즐거운지, 왜 조선인처럼 머리를 기르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 머리를 깎는 것은 풍속이며, 깎지 않음은 예라고 하는 것에서 당시 청인들도 조선인들의 유교문화에 입각한 수식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마을에 달자가 있느냐는 질문은 김창업이 청인을 가리키는 질문인데 동문서답식으로 달자와 중국이 어울려 친교를 맺을 수 없다는 청인 소년의 답은, 만주족이 이미 중원에 들어 와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만주족은 달자 즉 오랑캐가 아니라 중화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진 답으로서 이는 종족적 화이관과 지리적 화이관이 중국에서는 유명 무실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조선이 동이인데 달자가 아니냐는 반어적인 질문에 조선인은 상등인이라는 답을 함으로서 김창업의 자존심을 만족시켜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김창업의 질문에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족적, 지리적 화이관의 관점을 떠보는 질문이지만, 이미 유교적인 중국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인들의 시각에는 조선이 동이족임에도 불구하고 상등국이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중국과 이적의 구분 기준을 말하기를 오랑캐는 고대부터 좌임피발하나 고려는 東夷라고 불리고 있지만 의관문물이 모두 중국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小中華라는 칭호를 받고 있다는 문답을 통해서 수식제도와 복식제도의 중국화에서 화이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華夷의 구분기준은 공자 이전부터 이미 수식제도가 중국과 주변민족이 달랐을 뿐 아니라, 수식제도로써 화이를 변별하는 문화적 화이

론의 기준으로 삼았으니, 조선후기 사상을 지배하였던 문화적 화이론의 변별기준 역시 다른 제도보다도 수식제도인 변발과 변발하지 않음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조선후기의 사회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은 물론 청인 소년이 가지고 있는 화이관에는 이미 전통적 화이관이 변질되어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창업의 화이관은 문화적 화이관에 기인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 2.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에 나타난 수식에 관한 견해

### (1) 이의현의 생애와 <경자연행잡지>

이의현은 (1669 현종 10~1745 영조 21) 자는 德載, 호는 陶谷, 본관은 용인으로, 그의父 이세백은 존주론의 창시자인 노론의 거두 송시열의 추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1965년에 예조판서로 동지정사가 되어 청에 다녀왔고, 우의정 좌의정을 지낸 자로서, 조선후기 존주론 북벌론의 창시자인 송시열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관리였다고 볼 수 있다.

이의현 역시 이런 가문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을 뿐 아니라, 어릴 때에는 당시 송시열의 문하로서 학자이자 문신으로 예조참의를 지냈으며 문장파 서예에 뛰어났던 농암 김창협(1651-1708)에게 수학하였다.

이러한 그의 배경으로 볼 때 이의현도 조선후기의 화이론적 사상에 입각한 조선후기의 대표적 지식인이라 생각되어진다.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 상·하는 「도곡집」속에 수록되어 있는 글로서, 숙종46년(1720)에 동지사 겸정조 성절 진하의 정사로서 청나라 연경에 다녀온 기록인데<sup>14)</sup>, 이의현의 당시 직책이 예조참판으로서 예제에도 박식해 청의 문물을 한인제도와 조선의 제도와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고, 문물에 대한 비판 의식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에 나타난 남자 수식 <경자연행잡지 하>

“길에서 호인 남자를 만나면 거의가 수염이 성기어서, 비록 수십 수백 명을 만나도 수염의 많고

적은 것이 한 결 같이 똑 같아 절대로 수염이 붙을 틈은 자는 없다. 이것은 머리를 이미 모두 깎았으니 수염도 쳐서 얼마만 두어 남자임을 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sup>15)</sup>

“도중에서 본바, 소위 수재라는 자도 글을 잘 하여 더불어 말할만한 자는 전혀 없고, 비루하고 무식하기가 우리나라 遐鄕의 상놈들만도 못하다. 호인이 비록 중원에 들어가 주인이 되었지만 그 땅은 곧 사방으로 통하는 큰 都會이다. 요봉(요가 다스리던 영토)이후로 대대로 옛 성왕의 교화와 혜택을 입었는데 지금 무식하기가 이와 같으니, 이것은 중국의 문물이 모두 오랑캐의 풍속으로 들어간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인가? 참으로 슬픈 일이다.”<sup>16)</sup>

“청인들은 대개 몸이 살찌고 큰데 그 중에는 얼굴이 몹시 가증스러운 자도 있다. 누린내가 많이 나서 사람에게 풍기기도 한다. 언사와 행동이 전혀 공손한 기가 없다. 한인은 자못 몸을 단속하고 외모도 역시 좀 단정하지만...”<sup>17)</sup>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에도 청인들의 수식제도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한인과 청인들을 평가하는 글에서 그의 대청관과 문화적 화이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의현은 변발제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인 남자들 수백 명을 만나도 한 결 같이 수염이 성긴 것이 붙을 틈은 자가 없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머리는 다 깎고 수염만 더 부록하면 보기가 싫고 어울리지 않으므로, 수염을 조금만 두어 단지 남자임을 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

이는 예의와는 상관없는 제도임을 폄하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청인들은 수재라도 무식하기가 우리나라 遐鄕의 상놈만도 못한 것이 호인들이 중원의 주인이 되고 중국의 문물이 모두 오랑캐의 풍속으로 들어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의 문화적 화이관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의 문물을 보는 화이론적 시각은 종족을 평가하는 시각에서도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 청인 남자는 얼굴이 몹시 가증스러운 자도 있고, 누린내가 많이 나고, 언사와 행동이 전혀 공손한 기가 없다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인은 몸을 단속하고 외모도 단정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인종 구별적 편견은 이의현의 종족적 화이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또 중화의 풍속이 모두 오랑캐의 풍속으로 변질되어 슬프다는 표현은 그의 문물을 보는 가치관에 유교문화 우위의 문화적 화이관이 뿌리 깊게 내려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본다.

### 3. 이압의 <연행기사>에 나타난 남자 수식에 관한 견해

#### (1) 이압의 생애와 <연행기사>

이압은 (1737 영조 13 - 1795 정조 19) 자는 시경, 본관은 연안으로 33세에 등과하여 영·정조의 두 임금에 섬기면서 사헌부 대사헌과 이조판서, 예조판서, 공조판서, 형조판서<sup>18)</sup>, 등을 지냈으니, 6부중 4부의 판서를 역임하였다는 것을 볼 때, 이압은 당시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연행기사>는 이압이 정조1년(1777년) 진하사 은진주검동지사로서 부사직분을 가지고 청에 다녀온 견문기록으로서, 저자가 부사로 뽑히게 되던 해부터 다음해 복명할 때까지 청의 여러 문물을 관찰 체험한 것들을 일기체로 엮었다.

이압의 <연행기사>는 표·자문(表咨文)의 원문이 빠진 것과 소제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점이 약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내용면에 있어서 김창업의 <연행일기>나 홍대용의 <담헌연기> 등에 못지않게<sup>19)</sup> 풍부한 관찰기록 및 청의 다양한 문물이 기록되어 있고, 부사의 신분으로서 상투적인 기록문서가 아니라 직접 체험한 일들을 알뜰히 사견별로 연관성 있게 엮고 있고 청의 문물을 구별 지어 자세히 관찰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압이 청을 방문하던 시기인 정조 초기는 조선 중화주의가 시대사상으로 자리매김하며, 존주취편이 제작되었던 시기로<sup>20)</sup>, 이 시기에 예조판서라는 직을 역임했다는 것은 예제적인 측면에서 박식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청의 수식제도에 대한 기록들이 많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황이나 그의 직책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이압의 &lt;연행기사&gt;에 나타난 남자 수식

## &lt;연행기사 - 문견잡기 상&gt;

“호인이 항상 말하기를 ‘동국(조선)은 여자는 순한데 남자는 순하지 않고, 중국은 남자는 순한데 여자는 순하지 않다.’ 고 했다. 이것은 중국 남자는 모두 머리를 깎고 호복을 입었는데 여자는 끝내 발을 싸매는 것을 풀지 않고 호복도 입지 않으며, 우리나라 여자는 머리털을 두르고 발이 큰데 남자는 끝내 머리를 깎지 않고 아직도 중화의 제도를 인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sup>21)</sup>

## &lt;연행기사 - 문견잡기 상&gt;

“남자는 낡으면 포대가 속에서부터 머리를 깎아 정상에 백회(정수리의 숨구멍 자리) 및 두어 곳을 모두 썩으로 뜬다. 이것은 머리칼을 깎았기 때문에 여기에 뜬머리 풍한을 막기 위한 것이며, ‘백회를 떠서 총명을 감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오직 머리 뒤의 한 줌 머리칼은 깎지 않고 땅아서 늘어뜨리는데 이것이 소위 「호승적」이다. 혹은 말하기를 ‘부모가 있는 자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이것이 있고, 오직 중만이 다 깎았다.”<sup>22)</sup>

위의 기록에서는 호인의 말을 빌어서 쓴 글로 청인들의 시각과 조선인의 시각의 차이점이 많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기록에서는 당시 청인여자들은 한족여자들의 풍속인 발을 싸매고 호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기까지 중화제도를 지켜나가고 있음에 반해, 청인남자들은 이미 변발제도에 익숙해지고 청인남자들의 성품이 순하게 된 것이 변발 때문이라고 청인들이 생각한다는 것이며, 조선 여자들이 발이 크고 머리를 두른다는 것은 북방양식을 하고 있으므로 순하고, 조선남자들은 중화제도를 하고 있으므로 순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당시 중국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순함과 불순함이 북방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유무로 평가내리고 있었다는 사실로 볼 수 있으며, 수식제도가 성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중화사상을 없애려고 변발을 강요했던 청초시절부터 내려온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중화의 수식제도에 대하여 청인들은 약간은 부정적

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 만주족 지배 하 140여년이 지난 후에도 조선인들이 중화사상을 고수하고 있음에 비해, 청인들의 가치관속에는 이미 중화사상의 문물제도는 거의 맥이 끊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lt;연행기사 - 문견잡기 상&gt;

“...매양 저들과 이야기 하다가 그의 의복 제도에 대하여 물으면, 한인은 얼굴에 부끄러워 하는 빛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복색을 물으면,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중화의 제도이므로 좋은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시왕의 법도 또한 좋은 점이 많다.’고 한다. 그 까닭을 물으면, ‘머리털을 다 깎았으니 빗질하는 수고가 없고, 위아래가 똑 같이 입으니 명분의 구분이 없고. 제작이 간단하고 평이하야 일하는 데에 장애가 없으니, 이것을 편하게 여긴다.’고 대답한다.”

“...대저 원나라는 비록 중국에 들어와 임금 노릇을 하였으나 천하가 그래도 머리는 깎지 않았는데 지금은 四海가 모두 호복이다. 백 년 육침(陸沈, 나라가 오랑캐의 침입을 받아 망함)에 중화의 문물이 씻은 듯 남은 것이 없고, 선왕의 법복은 지금 모두 회자배의 구경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제멋대로 고치고, 바꾸니 황명의 예전제도가 날로 멀어지고 날로 없어져서 장차 다시 얻어 보지 못하게 되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sup>23)</sup>

이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인들은 당시 조선의 사절단들이 청을 방문하면서 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묻는 중화의 제도에 대하여 만주족 체제에 대하여 그리 반발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인들이 호복 제도를 부끄러워하고, 조선의 사절단들이 입은 복색을 중화의 제도이므로 좋다고 인정하면서도, 변발제도를 머리털을 다 깎았으니 빗질하는 수고가 없고, 위아래가 똑 같이 입으니 명분의 구분이 없고. 제작이 간단하고 쉬워 일하는 데에 장애가 없어 편하다고 설명하고 있음은, 이미 전통적인 화이관이 청인들에게는 무용지론이 되었고 조선인들만 시대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대에도 머리는 깎지 않았는데 청대에 와서는 四海가 모두 호복으로 변하여, 백 여 년 만에 중화의 문물은 모두 사라지고, 중화의 법복이 회자배의 구경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 버려 참으로 슬

프다는 기록으로 이암의 청에 대한 부정적인 화이 사상과 대청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명이 망한지 140여년이 흐르면서 청의 변영과 잦은 왕래로 인해 조선후기 사회는 북학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가는 국제사회를 인식하지 못한 채 중화사상에 얽매인 채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조선후기 지식인의 모습과 중화사상의 본질인 문화적 화이관이 수식제도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견잡기 하.>

“...심윤은 머리를 깎지 않고 죽을 때까지 흰 의관을 썼다. 혹은 절의정문을 조정에 청하지 않는 자도 있고, 혹은 강희, 옹정이라 칭할 뿐 「황상」이라 칭하지 않는 자도 있었다. ...이것으로 본다면 士論은 아직도 다 죽지 않은 것인가?”<sup>23)</sup>

이 기록에서도 목숨 걸고 변발하지 않고, 명에 대한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흰 의관을 쓰고, 중화의 예제를 지키는 심윤의 이야기를 조선 사절단이 깊이 통감하고 있다는 것은 수식제도가 문화적 화이관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예제였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만주족의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선비들의 뜻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 이적이 중화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종족적 화이관과 함께 부정적인 대청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본다.

#### 4.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남자수식

##### (1)박지원의 생애와 <열하일기>

박지원은(1737 영조13 - 1805 순조5) 본관은 潘南, 자는 仲美, 호는 燕巖으로 그의 조부는 지돈녕부사를 지낸 박필균이며, 父 박사유는 박지원이 어렸을 때 일찍 죽었으므로 그의 조부가 양육하였으며, 16세에 처삼촌인 榮木堂 李亮天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서 20대에 이미 뛰어난 글재주를 보였으며, 朴齊家·洪大容·柳得恭 등과 사귀었다.

박지원은 우암 송시열 계열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존주론과 대명의리론에 얽혀서 아무런 실천이 없는 북벌론을 부르짖었던 시기에 이용후생의 북학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 북학파의 거성이다.

<열하일기>는 총 26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조4년(1780)에 그의 삼종형 금성위 박명원의 수행원으로 청 건륭제의 70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가 성경, 북경, 열하 등지를 관람하면서 엮은 책으로서, 그의 觀賞은 勝地·名刹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이용후생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기록하고 있음은 물론, 당시 중원을 지배하고 있던 청조를 객관적 시각으로 인식하여 견문한 문물제도의 이용후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양하게 피력해 나가고 있어<sup>24)</sup> 북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박지원이 중국을 여행하였던 시기는 명 멸망 후 150여 년이 되는 청조의 부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명의리론과 존주론에 근거한 정통 유교주의적 화이관으로 모든 가치와 문물을 판단해 버리는 조선 정치계와 지식인들의 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 박지원의 사상적인 면도 엿보이고 있으나 청의 변발제도와 의관예제를 판단하는 가치기준에 있어서는 중화의 예를 따르는 조선의 수식제도를 자랑스러워하는 이울배반적인 기록들도 보이고 있다.

##### (2)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남자 수식

###### <열하일기 I - 일신수필>

7월 15일(신묘)의 북경에서의 볼거리를 묻는 대목의 기록을 보자면 대부분이 “...대답이 분분하여 해야 할 수가 없으나, 上士는 섭섭한 표정으로 얼굴 빛을 바꾸면서, ‘도무지 볼 것이 없더군요.’ 한다. ‘황제가 머리를 깎았고, 將, 相, 大臣 모든 관원들이 머리를 깎았으며 士와 庶人들까지도 모두 그러한즉 비록 궁덕이 殷·周와 같고 부강함이 秦·漢에 지나친다손 치더라도 천지가 배판 한 뒤로 아직 깎은 머리 깎은 천자는 없었다오. 또 비록 육룡기·이광지(청의 성리학의 대가)의 학문이 있고, 위희(청의 문학가)·왕완·왕사정(청의 문학가)의 문장이 있고, 고염무·주이존의 학식이 있다한들 한번 머리를 깎는다면 되놈이요, 되놈이 되면 곧 짐승일지니, 우리가 그들의 짐승에게 무엇이 볼 게 있단 말이요...’ 이는 春秋를 잘 읽은 이의 말이다. 이 일부의 <춘추>는 중화를 높이고 夷族을 낮추어 보는 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이다. 우리나라가 명을 섬긴지 200년 동안 충성을 한 결 같이 하여



이름은 속국이라 하나 실상을 한 나라나 다름없고, ... 마침내 온 누리가 천봉·지탁의 비운을 만나고, 온 인민의 머리를 깎아서 모두 되놈을 만들은 즉 비록 우리나라만이 이런 수치를 면했으나... 그러나 존주의 사상은 주를 높이는 데에만 국한될 것이요, 夷狄의 문제는 夷狄에게만 쓸 일 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성곽과 건물과 인민들이 예와 같이 남아 있고, 正德·利用厚生의 도구도 파괴된 것이 없으며, ... 저들이 이적일망정 실로 중국이 자기에게 이로우며 길이 누리기에 족함을 알고, 이를 빼앗아 옹거하되 마치 본시부터 지니었던 것 같이 한다. 대개 천하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진실로 인민에게 이름고 나라에 도움이 될 일이라면, 그 법이 비록 夷·狄에게서 나온 것일지라도 이를 거두어서 본받으려거든, ... 성인이 <춘추>를 지으실 제 물론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쳤으나, 그렇다고 이적이 중화를 어지럽힘을 분히 여겨서 중화의 가히 숭배할 진실마저 물리친다는 일은 듣지 못하였다. ...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은 下士이지마는 이제 한 말을 한다면 '그들의 장관은 기왓 조각에도 있고, 또 똥 부스러기에도 있다.' 고 하려다."<sup>26)</sup>

이 기록을 보면, 박지원의 청의 문화를 보는 시각은, <춘추>의 내용을 인용하여 上士·中士와 같은 <춘추>의 내용을 잘 이해한 사람은 이적을 멸시하고, 중화의 덕을 높이 평가하여 머리를 한번 깎으면 짐승과도 같은 되놈이 된다는 중화예제 제일 우선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조선의 사대부들을 높이 평가 한다고 하면서도, 박지원 본인은 下士이기에 존주를 높이는 사상은 주를 높이는 데에만 쓰고 이적의 문제는 따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18세기의 청은 가장 번성하며 부흥하였던 시기로, 조선에서는 청을 배우자는 북학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박지원은 비록 중국을 통치하는 자는 만주족이지만 중국 대륙에 남아 있는 문명과 이용후생의 도구들과 법률제도 등이 명대와 같이 변함없이 중국을 지키고 있을뿐 아니라 청인들 또한 원래 자신들의 문물제도였던 것처럼 누리고 있는 모습에서 이적이라는 이유로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지키고 배우며 이어가야 할 실질을 외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며 조선을 위해서 청의 문화문

물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모습에서 북학자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 <열하일기Ⅱ, 鵝汀筆譚>

열하일기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은 문답을 주고받은 청나라의 학자인 흑정과 박지원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필담의 방법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청나라와 조선의 사회 풍속에서부터 호복제도, 경제제도, 변발제도 등의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누었던 기록들을 흑정필담이라는 제목으로 열하일기에 수록하고 있다. "... '머리 깎는 봉변을 당했으니 志士로서 이미 만 번은 탄식을 하였겠지요.' 하였더니 흑정은 얼굴빛이 변했다가 얼마 뒤에 빛을 바로 잡고는 머리 깎는 봉변이라고 쓴 종이를 찢어서 화로에 던지면서, '蠢의 사람들이 사냥하기 경쟁을 하였는데 '나도 사냥 경쟁을 하겠다.' 했으니, 어찌 時中의 성인이 아니겠습니까.(성인도 시속을 따른다는 뜻) 이탁오(명의 저명한 사상가, 가려운 병을 얻어서 머리를 깎고 파직을 당하였다.)는 자진하여 갑자기 머리를 깎았으니 이는 凶性이더군요.' 한다. 나는 또, '듣건대 절강 지방에서는 머리 깎는 전방에다가 盛世樂事라는 편액을 써서 붙였다는 데요.' 하고 물으니, 흑정은 '들은 일이 없는데요. 이것은 석성금(청의 학자)의 패설과 같은 뜻이지요.' 한다."<sup>27)</sup>

위의 기록으로 보면 박지원은 청조가 한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변발제도를 시행하였기에 한인의 입장에서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일을 '봉변'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인 흑정의 생각을 묻자 흑정은 박지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얼굴빛에 변화를 일으키며 대륙인의 자존심을 위해 공자의 노나라를 예로 들어 성인들도 시중의 풍속을 따르는 법이기에 청의 변발 풍습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변호하는 모습에서 한족이지만 청의 제도에 동화되어 변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화이관이 이미 중국인들에게는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이 아니나 오히려 조선의 학자인 박지원은 문화적 화이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음을 알 수 있다.

#### <열하일기Ⅱ, 동란섭필>

"이탁오는 머리가 가려워서 공공연하게 머리를 깎았더니 중국 사람들은 또한 그를 흉성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체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징

조라고 할 것이다. 지금 중국 사람들의 머리 깎는 풍속은 금·원 시절에는 없던 풍속이니, 만일 중국이 낳은 眞主 明太祖 같은 이가 있다면 건곤을 막게 숙청할 것인데 우민들이 습속에 젖은 지도 이미 1백 여 년이 지나고 보니, 또한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자면 도리어 가렵고 불편하다고 할 자가 없지 않았다.”<sup>28)</sup>

위의 기록을 보면 明 당시 머리에 병이 생겨 머리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대에는 정통 유교주의적 예제에 의하여 머리를 깎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직을 당함과 더불어, 그의 성씨가 흉성이 되어 버렸을 정도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사회 배반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주족 지배 150여년이 흐르면서 오히려 청의 변발 풍습에 한인들이 젖어버려 명대처럼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자면 도리어 가렵고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변발의 제도가 사회에 정착화 되면서 정통 중화주의적 예제와 문화적 화이관은 이미 중국인들의 의식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잊혀졌다는 것과 오히려 조선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시대적 아러니를 알 수 있다.

#### <열하일기Ⅱ, 동란선필>

「춘명몽유록」에 이르기를, “...청이 처음 일어날 제 한인들 붙드는 대로 머리를 깎았으며, 정축년(1637년) 맹약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는 깎지 않았다. 대개 여기에는 까닭이 있으니 세상에 전하는 말에는, 청인들이 여러 번 汗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깎도록 명령하라고 권했으나 汗은 묵연히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여러 패륜들에게 이르기를, ‘조선은 본래 예의로 이름이 나서 머리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이제 만일 억지로 그 심정을 꺾는다면 우리 군사가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반복할 터이니, 그들의 풍속에 따라 예의로서 엄매 두는 이만 같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만일 도리어 우리 풍속을 배운다면, 말 타고 활쏘기가 편할 터인데 이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야 하고는 드디어 중지시켰다.’ 한다. 우리로서 말하자면 다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들로서 계교한다면 우리들의 문약함을 그대로 두려던 것이었다.”<sup>29)</sup> 라고 하여 병자호란 후 청은 중국 한족을

지배하기 위한 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치발령을 조선에도 시행하려 하였으나 머리털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조선인들의 수식에 대한 인식을 청의 황제가 알고 조선인들에게 변발호복을 명하지 않음을 조선의 국력이 신장됨을 우려한 청나라의 계교로 인정을 하면서도, 조선이 중화의 예를 이어갈 수 있었음을 오히려 더 큰 다행으로 여기는 것에서 북학자이지만 수식의 제도를 보는 가치관에 있어서는 문화적 화이론이 가치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5. 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 나타난 남자 수식에 관한 견해

#### (1) 서유문의 생애와 <무오연행록>

서유문은(1763 영조38 - ?) 자는 학수, 본은 達城, 서직수의 자로 정조 11년에 정시 병과, 관은 양남 암행어사에 이르렀고 이후 승지·대사간·이조참의·의주부윤·평안도관찰사 등을 지내고 1822년(순조22) 이조참판에 올랐다

<무오연행록>은 정조22년(1798년10월19일) 三節年貢兼謝恩使에 서장관으로 동행하여 그 다음해 4월 초2일 북명하기까지의 왕반160일의 기록으로 산문으로는 <담헌 연행록>, 가사로서는 홍순학의 <연행가>, 김인겸의 <일본장유가>와 더불어 국문으로 쓰여진 연행록이다.<sup>30)</sup>

<무오연행록>의 특색으로는 왕반의 정식 기록이라는 점과 그의 연행록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서유문 한 개인의 대문명관·대청관·대중국관 및 자아비판으로 중국의 거대한 국토와 車制와 규모에서 壯麗를 생각하면서 중국문명에 대한 심취에 가까운 경양을 보이는 반면 禮制면에서는 조선은 華의 정통을 이어받았고, 청나라는 胡라는 만주족 멸시의 모순된 논리를 앞세워 대문명관에는 호한을 분리하려는 경향<sup>31)</sup>을 보이고 있다.

<무오연행록>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보다 17년 뒤에 저술된 것으로 볼 때 이 시기는 북학운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였으나 그의 연행록에는 청에 대한 비판적인 대청의식과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대명의리론과 문화적 화이론이 그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인해 정조 후기인 18세기 말에도 중화의 예제만을 인정하는 문화적 화이론이 시

대사상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무오연행록>은 한글로 된 기행문학으로 장서각본 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한문본 무오연행(戊午燕行) 1책이 있다.

## (2)서유문의 <무오연행록>에 나타난 남자 수식

<무오연행록 제1권, 무오년 8월 9일>

“연경은 천자의 도읍이니 문물이 비록 다르나 산천은 의구하고, 의관이 비록 변하였으나, 인물은 고급이 없나니 어찌 한번 몸을 일으켜, 천하의 큰을 보지 않으며...”

이 기록은 서장관으로 발탁되어 연행하기 전의 심경을 기록한 것으로서, 대국 연행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자연과 사람들은 명대와 다름없이 청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나 의관예제만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청의 지배 160여년이 지난 뒤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중화주의적 예제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화적 화이관이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오연행록 제1권, 무오년 11월 21일>

“...머리털은 뒤통수의 한복판 외에는 다 깎았으며, 남은 털을 땅아 드리웠으며, 뒤로 보면 우리나라 늙은 아이 중놈 같더라... 사나이는 어른과 아이를 분별할 길이 없으며...”<sup>32)</sup>

<무오연행록 제2권, 무오년 12월 12일>

“...이자성을 사로잡고 격서를 천하에 전하여 수년 사이 중국을 통치하고, 천하 사대부로 하여금 머리를 깎고 호복으로 변하여 지금 수백 년을 누리니, ...기운을 가다듬고 충성을 다하다가 힘이 진하고 운수 마치면 차라리 신질을 오로지 하여 지하의 옛 임금을 좇으리니, 어찌 저어 한 계교로 몸을 헐어 욕을 만세에 끼치리요.”<sup>33)</sup>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서유문은 청인 남자들의 변발제도를 어른과 아이의 분별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유교주의적 상하의 질서를 으뜸가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조선인의 관점으로 볼 때 만주족의 변발제도는 예의를 모르는 금수들의 제도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청이 중화의 예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수식의 제도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들은 이미 변발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니 조선의

지식인인 서유문이 변발호복으로 천하가 변한 현실을 개탄함은 물론, 더 나아가 절개를 굳게 지켜 명을 따르는 것이 선비의 도리이며, 변발호복을 따르는 것은 만세에 욕을 끼치는 것이라며, 변해버린 중국인들의 화이권을 조선의 지식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통해서 중화의 예제만을 고집하는 문화적 화이관이 서유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오연행록 제2권, 무오년 12월 16일>

“...머리를 깎고 호복하기를 싫어할 진대 벼슬을 버리고 깊이 숨은 즉 세상의 높은 사람이 되리니, 이리 못 하니, 작록의 사양함이 어찌 어렵지 않으리요...”<sup>34)</sup>

<무오연행록 제2권, 무오년 12월 21일>

한 역관이 마침 시독 장문도를 만나 수작을 하다가 조선의 선비를 들이지 않음을 물어보니, “翰林은 본디 大明적 大家 자손이 많은지라. 귀국 선비혹 수작하다가 성명과 조상을 묻은 후 문득 가로되, ‘이 같은 명조의 후손으로 어찌 차마 머리를 깎으며 원편 옷깃을 하여 본조의 벼슬을 구하느뇨?’ 하니, 문득 듣는 자가 좌우를 돌아보며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여 얼굴이 문득 난연(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모양)하고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이후로 동류로 의논하여 조선 사람을 문을 막아 들이지 아니 하느니라.’ 하니 사권 것이 열고 말이 깊으니 어찌 막는 바가 아니 되리요.”<sup>35)</sup>

위의 기록을 통해 보면 이미 이 시기 중국인들은 변발호복을 하고 청조의 관리로 임용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조선인인 서유문은 화이론적 관점으로 현실의 출세를 위하여 오랑캐의 변발호복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청의 변발호복을 따르지 않고 중화의 예제를 따르면 세상의 높은 사람이 된다는 가치관에서 그의 문화적 화이관을 잘 알 수 있다.

또 명대의 大家門 자손이 오랑캐의 변발좌임제도를 따르고, 벼슬을 구하는 것을 꾸짖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이후로 조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역관을 통해 듣고 기록한 것은 대명리론에 기인한 조선인의 화이관적 가치관의 표현으로 해석되어진다.

#### IV. 결론

이상으로 18세기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있었던 대청의 식과 연결된 중화주의적 화이관과 이 시기 <연행록>에 기록된 청나라 남자들의 수식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발췌하여 연행사들의 화이론적 가치관이 수식제도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의 조선 지식인들은 淸이 정치·문화의 대국을 이룩한 실상의 목격을 통해 17세기의 국가적 대의였던 대명의리론에 맞물린 존주론의 강화로 사상적 전환을 이루면서 전통적 화이관 중 문화적 화이관을 시대사상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화이관의 변모를 가져왔다.

즉 만주족의 청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자, 정통중화 문화의 계승자는 조선임을 자임하면서 양란의 후유증 극복과 국민적 자부심 회복을 위하여 유교주의적 예제를 정비·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종족적·지리적 화이관을 넘어 조선이 문화적으로 만주족보다 우월하다는 문화적 화이관이 조선후기 지식인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며 모든 예제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으로 조선후기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문화적 화이관을 <연행록>의 기록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김창업은 변발의 수식제도를 따르지 않는 조선이 비록 동이이기는 하지만 상등국이라는 청인 소년의 말에 조선이 문화적으로 청에 비해 우월한 소중화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압은 목숨 걸고 중화의 예제를 지키며 변발하지 않은 선비의 뜻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 그의 문화적 화이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북학의 거성인 박지원 역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배워 이용후생을 주장하면서도 조선이 청의 변발제도를 따르지 않음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상적 아이러니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 서유문은 변발의 수식제도를 따르는 것을 만세의 치욕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문화적 화이관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셋째, 변발제도의 수용에 대한 가치관이 중국인과 조선인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니, 조선의 지식인들과 같이 중국인들도 18세기 초반에는 변발제도를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조선의 제도를

부러워하고 중화의 제도라 인정하였지만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는 변발제도의 수용을 당연한 현실로 인정함은 물론 명의 유제가 길거리의 옷음거리로 전락하는 세태를 보면서 청인들은 당연한 결과로 인정하는 반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적 화이관이 중국인들에게는 이미 낡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되어버렸으나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시대사상이자 가치관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행록>의 남자 수식제도에 반영된 18세기의 화이관의 변모양상을 고찰 분석해 본 결과 만주족의 변발제도는 정통중화주의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夷狄의 제도이기에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에게는 수용되지 않는 배척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졌으며, 이러한 가치관의 중심에는 중화주의적 화이관 중 문화적 화이관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화이관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는 이 시기 이미 중화주의적 화이관이 낡은 시대사상으로 인식되어 갔으나 조선후기의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무물과 제도를 평가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제2색복조.
- 2) 선화봉사고려도경. 제7권. 관복조.
- 3) 전해숙 (2004). 연행일기의 복식관을 통해 본 대청인식. *복식문화* 7(1); 전해숙 (2005). 18세기 초 <연행록>에 기록된 조선지식인의 복식관. 김창업, 최덕중 (2004). 연행록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8(1); 임기중 (1992). 조천록과 연행록의 복식. *한국복식* 10.
- 4) 이춘식 (2002). 중화사상 연구. 신서원, p.30.
- 5) 손승철 (1985). 17-18세기 한국사상의 진보성과 보수성의 갈등에 관한 연구(I). -특히 실학사상의 대외인식을 중심으로-. *원사학* 1, p.51.
- 6) 禮記注疏及補正. 王制, p.15.  
有不粒食諸侯 北方曰狄 衣羽毛 穴居 有不粒

食諸侯.

- 7) 선화봉사고려도경. Op. cit.
- 8) 유근중 (1978). *명청교체기에 있어서 대륙관의 轉回*. 한가람, pp.73-75.
- 9) 전해숙 (2005). Op. cit., p.4.
- 10) 정옥자 (2001). *조선후기 조선증화사상 연구*. 일지사, pp.209-210.
- 11) 손승철 (1985). Op. cit., pp.56-57.
- 12) Ibid., pp.7-8.
- 13) 국역연행록선집Ⅳ (1976). *고전국역총서100*. 연행기사. 해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p.110-111.  
 問剃頭兩意樂乎何不 存髮如我們答剃是風俗不剃是禮…問村此亦有辮子不答無有 問■們歟 辮子結親否答夷狄之人怎麼合我們中國結親問我高麗亦是東夷 你者俺們亦與辮子一樣 麼 答貴 國乃上等之人達字乃下等之人怎麼一樣 們你知中國與夷狄有異者聽誰說答在書孔子之言吾 其披髮左衽矣問辮子剃頭你們亦剃頭有何分別中國夷狄答雖我們剃頭有禮辮子剃頭無禮余曰說得有理你年少能知夷狄中國有別可貴可悲高麗雖曰東夷衣冠文物背倣中國故有小中華之■稱矣今比問答泄則不好宜秘之夜深罷余以清人為辮子而奇謔認以蒙古故其答如此.
- 14) Ibid., p.7.
- 15) Ibid., pp.79-80.  
 路中見男胡率是疎髻雖累十百人鬚髻多小一皆均適絕無鬚髻被頰者豈頭髮既盡剃故髻.
- 16) Ibid., p.80.  
 胡人雖入主中原乃其地即通衛大都堯封以後世被古聖王化澤而今乃賀賀如此中州文物盡入覆袋故自爾至此耶良可慨也.
- 17) Ibid., p.879.  
 清人大抵豐偉長大而間有目極可憎者…漢人則頗加歛■谷集.
- 18) 국역연행록선집Ⅴ (1976). Op. cit., pp.10-11.
- 19) Ibid.
- 20) 정옥자 (2001). Op. cit., p.116.
- 21) Ibid., pp.220-221.

東方曰夷 被髮文身 有不火食諸侯 南方曰蠻 雕題交趾 有不火食諸侯 西方曰戎 被髮衣皮 東國則女順而男不順中國則男順而女不順蓋

以中國男子蓋皆髡胡服女子則終不■畏足亦不用胡服我國女子環髻大足男子則終不剃髡尚能華制而言也.

- 22) Ibid., p.222.

男子生則在襦褌車輒剃髮頂上白會及數皆以艾之益頭髮盡削故此以防風寒白會減聰明者誣矣惟腦後一把髮不為削去辮而之此所謂胡僧赤或言有父母者有此而實則母論老少皆有之惟釋子盡剃之矣.

- 23) 국역연행록선집Ⅵ (1976). Op. cit., pp.225-226.

每與渠輩語問其衣服之制則漢人輒然有慙色問我人服色或云此是中華之制非不知可喜吾輩時王之法亦多好處詰其所以則頭髮盡剃無梳櫛之勞上下均服無名分之別制度簡易執事服役無所相碍以此為便有識…大抵元氏雖入帝中國天下未之剃髮今則四海之內背是胡服百年肉針中華文物蕩然無先王法服今盡為戲子輩玩笑之具隨意改易皇明古制日達而日將不得復見至於

- 24) Ibid., p.278.

沈倫則不去髮仍以白衣冠至死不改或有節義問不請於朝者或有只 康濼雍正而不 皇上者…

- 25) 박기석 (1997). <열하일기>와 연암의 대청관.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5*, p.219.

- 26) 국역열하일기 I (1976). *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p.171-174.

君行第一壯觀，何物也，第為拈出其第一壯觀而道之也，…紛紛然指不可勝屈，上士則愀然變色，理容而言曰，都無可觀，何謂都無可觀，曰皇帝也薙髮，將相大臣百執事也薙髮，士庶人也薙髮，雖功德侔殷周，富強邁秦漢，自生民以來，未有薙髮之天子也，雖有陸隴其，李光地之學問，魏禧，汪宛，王士澐之文章，顧炎武，朱彝尊之博識，一薙髮則胡虜也，胡虜則犬羊也，吾於犬羊也，何觀焉，此乃第一等義理也，談者默然，四座肅穆，…此善讀春秋者也，一部春秋，乃尊華攘夷之書，我東服事皇明二百餘年，忠誠割犂，雖稱屬國，無異內服，及四海值天崩地，坼之運，薙天下之髮而盡胡之，一隅海東，雖免斯耻，其為中國，復讐刷心，

豈可一日而忘之哉，我東士大夫之爲春秋尊攘之論者，磊落相望，百年如一日，可謂盛矣，…三代以降 聖帝，明王，漢唐宋明之良法美制，固不變也，彼胡虜者，誠知中國之可利而足以久享則，至於奪而據之，若固有之，爲天下者，苟利於民而厚於國，雖基法之或出於夷狄，固將取而則之，而況三代以降，聖帝明王漢唐宋明固有之故常哉，故，今之人，誠欲攘夷也，暮如盡學中華之道法，先變我俗之椎魚，自耕蠶陶冶，以至通工惠商，暮不學焉，人十己百，先利吾民，使吾民制挺，而足以撻彼之堅甲利兵然後，胃中國無可觀可也，余下士也，日壯觀在瓦 礫，日壯觀在糞壤。

27) 국역열하일기 II (1976). Op. cit., p.49-50.

余日頭厄已發，志士萬太息，諺汀色變，己而色定，裂頭厄投罇中曰，魯人獵犖，某亦獵犖，豈不是時中之聖，李卓吾，忽自開剃，這是凶性，余日聞浙中剃頭店，牌號盛世樂事，諺汀日未之聞

也，是與石成金快說同意…。

28) 국역열하일기 II (1976). 고전국역총서 19.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242.

29) Ibid., pp.291-292.

30) 국역연행록선집 VII (1976). 고전국역총서 101. 淸之初起俘獲漢人，必隨得隨剃而，丁丑之盟，獨不令東人開剃，蓋亦有由，世傳淸人多勸汗(淸太宗)令剃我國，汗默然不應密謂諸貝勒曰，朝鮮素號禮義愛其髮甚於其頭，令若強拂其情則軍還之後必相反覆，不如因其俗以禮義拘之，彼若反習吾俗便於騎射非吾之利也，遂止自我論之幸莫大矣，由彼之計則特狃我以文弱矣。

해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7.

31) Ibid., pp.12-13.

32) Ibid., p.40.

33) Ibid., pp.93-94.

34) Ibid., p.107.

35) Ibid., p.131.

첨언 : 참고문헌 13), 17), 21)에 ■는 한문이 없는 관계로 ■표기함.